국제 농업 정보: 유럽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해상 운송[5)]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항구가 봉쇄됨에 따라 전 세계 식량안보에 큰 영향을 미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세계 밀의 약 34%를 수출하였으며, 이 중 95%는 해상으로 운송됨.
-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해상 운송이 거의 중단됨에 따라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및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식량 공급 안정성이 위협을 받음.

■ 2022년 7월 22일, 식품시장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튀르키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UN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참여하는 흑해 곡물(BSG) 수출협정을 체결함.

- IMO는 무력 충돌 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좌초된 선박과 선원의 대피를 위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

■ BSG 수출협정은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오데사※를 포함한 여러 흑해 항구로부터의 수출을 허용함.

※ 오데사: 우크라이나 남서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중 하나

- 협정은 안전한 해상 항로를 통해 흑해 항구에서 국제 수역으로 화물선을 안내하는 이스탄불의 공동조정센터(JCC)에 의해 이루어짐.
- 협정 이후 2022년 11월 7일 기준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수출된 곡물 및 기타 식품의 총 물량은 약 1,100만 톤 이상이며, 이 중 1/4은 저소득 국가로 운송됨.

■ BSG 수출협정은 2022년 11월 19일까지 120일 동안 이행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러시아 정부에 의해 계획이 중단됨.

- 이후 2022년 11월 17일에 BSG 수출협정을 12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함.

5)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Russia's war on Ukraine-Maritime logistics and connectivity: State of play"(2022.12.1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유럽

■ EU는 러시아의 BSG 수출협정 중단을 규탄하고, 러시아가 결정을 즉시 번복할 것을 촉구함.

- 해상 운송과 관련된 EU의 조치 및 최근 제재 정책에 따라 EU 항구는 러시아 선박에 대한 폐쇄를 강행하였으며, 해상 제품을 포함한 상품 및 기술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됨.
- 이러한 제재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전쟁 상황에 따라 EU에 의해 연장될 수 있음.
- EU 해양안전청(EMSA)은 해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흑해 상공 비행을 지속하고 있음.

■ EU는 BSG 수출협정 외에도 육상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을 포함하는 연대 통로(Solidarity Lanes)의 지속성에 전념함.

- 2022년 11월 11일, 위원회는 세계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연대 통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10억 유로를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함.

■ 흑해를 이용한 상품 거래는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직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오데사가 공격을 받으면 선박 적재 문제가 발생함.

■ 우크라이나와의 중요한 상품 운송을 위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EU와 회원국, UN 및 기타 당사국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

- 벨기에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의 곡물 선적을 더 많은 국가에 개방하겠다고 선언함.
-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3년 중반까지 약 60척의 선박이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남반구 국가로 곡물을 운송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EU와 약 20개국이 이에 동의함.

■ 2020년 이후 곡물 가격과 운송 비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1.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2022년 최종 유럽이사회 주요 의제와 결과[6)]

■ 2022년 12월 15일 개최된 2022년 마지막 정기 유럽이사회 회의에서는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경제 분야에 대한 의제가 논의됨.

■ EU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비난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

-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민간 핵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재정적·군사적·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특히 2023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180억 유로 규모의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9차 제재조치에 합의함.

■ 유럽평화기금(EPF)과 우크라이나를 위한 훈련 지원(EUMAM Ukraine)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조함.

- EPF의 재정 범위를 20억 유로까지 늘리고 이후 단계별 추가 재정 증가를 허용하는 정치적 합의에 승인함.

■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시민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손상된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함.

-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 지원 회의를 주최했으며, 난방시설, 발전기 등 10억 유로 규모의 겨울 생활 물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을 약속함.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 유가 상한제가 러시아가 전쟁을 종료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함.

■ 전쟁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가 높아짐에 따라 '우크라이나 곡물(Grain from Ukraine)' 구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유럽이사회는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의 단계적인 감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투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6)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Outcome of the European Council meeting of 15 December 2022"(2022.12.1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유럽

■ 동절기 대비를 강조하면서 공동 가스 및 수소 구매를 위한 EU 에너지 플랫폼의 신속한 운영과 소비 절감 및 가스 저장시설의 확충을 촉구함.

■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위기의 위험성에 동의하며, 유럽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회복과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에너지 위기가 EU의 경제, 산업 및 기술 기반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유럽 경제를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

- 유럽이사회는 2023년 1월까지 유럽 및 국가 차원의 자원을 동원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EU 전략을 제시하도록 유럽위원회에 요청함.

■ EU와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진행, 유럽이사회 회원국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국과 적극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데 동의함.

■ EU의 경제 및 산업 기반은 다음 유럽이사회의 중심 의제가 될 것임.

- 유럽위원회 의장은 유럽 그린 딜을 EU의 '가장 실질적인 우선순위'이며, 에너지 시장의 개혁 및 에너지원 다양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는 공동 조달에 중점을 두었으며, EU의 모든 임무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 역량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유럽이사회는 EU의 확대와 관련한 결론을 승인하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1.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